

## 선진 계란유통으로의 첫 걸음 떤 “다한영농조합법인 계란유통센터”



▲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다한영농조합법인 계란유통센터 전경



▲ 다한영농조합법인 이만형 조합장

지난 3월 다한영농조합법인(조합장 이만형, 이하 다한)의 계란유통센터가 완공되어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. 다한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우수 영농조합법인으로써 산란계 2세 12개 농장(조합원)으로 구성되어 있다. 다한에서는 2004년부터 사료 사용량(5원/kg)에 따라 거출하는 자체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월 약 5천만원의 자금이 모여 다한의 경영을 더욱 튼실히 하고 있다. 지난 3일 본회 임직원 및 양계기자단을 초청하여 최근 완공한 계란유통센터 설명회를 진행하였다. 이날 설명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였다.

## 다 함께, 다 같이

1999년 설립된 다한은 12명의 조합원이 똘똘 뭉쳐 안전한 계란 생산만 생각하는 영농조합이다. 다한이란 의미는 순수 한글로 ‘다 함께, 다 같이 어울려, 다 같이 한다’라는 뜻으로 산란계 2세들이 모인 계란 생산자 조합으로써 안전, 안심,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고 공동으

로 구매, 관리, 판매하는 원칙을 목표로 16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다. 대표 브랜드로 ‘2050란’, ‘행복예감’, 광주시 농특산물 브랜드 ‘자연채’ 인증 계란, 경기도지사 인증 ‘G마크’ 인증 란 등이 있다. 조합의 총 사육수수는 149만수,



▲ 지난 3일 다한 계란유통센터 설명회가 있었다.

연간 총 생산량은 4억개이며 전 조합원이 친환경농산물, HACCP 인증을 받았다. 또한, 헬리코 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개선된 IGY면역항체 계란 생산 및 특허획득, 국내 최초 계란 자판기 개발 및 설치를 하였으며 지난 2013년 계란유통



진천 갈미농장



광주 길샘 축산



과산 송오축산



여주 힘일농장



이천 이천농축원



광주 영생농장



포천 가온농장



광주 대승농장



광주 칠성농장



광주 영일농장



이천 한성농장

▲ 다한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농장

센터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올 3월 완공하였다.

#### 4통 실현

다한은 사료, 병아리, 사양관리, 질병관리를



선물세트



왕란 15구



중점으로 조합원의 계란 품질을 통일하고 있다.

HACCP인증된 사료회사에서 공동구매로 다한 전용사료를 공급하고 건강한 병아리 공급을 위해 인주부화장과 연중 계약하였으며 2008년 전 조합원이 HACCP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. 또한, 질병관리를 위해 수의대학교 조류질병연구실, 동물병원과 수의컨설팅 산학 협력을 맺고 농가 질병 및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. 이 조합장은 “우리 다한은 호흡기 질병, AI 등



1등급란



G마크 1등급란



행복생생왕란



① 입고검사  
자동 품질 검사기를  
통한 신선도검사



② 정렬  
파란 등 외관선별 후  
컨베이어 정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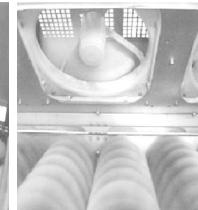


③ 온수세척(CCP1B)

50°C 온수로 세척  
브러쉬로 표면 세척



④ 세척  
브러쉬로 표면 세척



⑤ 건조  
온풍 브로워로 건조



⑥ UV살균  
UV살균 실시



⑦ 실금검사  
실리콘바로 계란 표면의  
실금을 자동으로 검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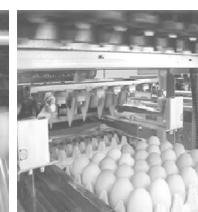
⑧ 중량검사  
각 계란의 중량을  
측정



⑨ 혈반검출  
계란을 투광하여  
혈관검출



⑩ 난각인쇄  
난각 정보 인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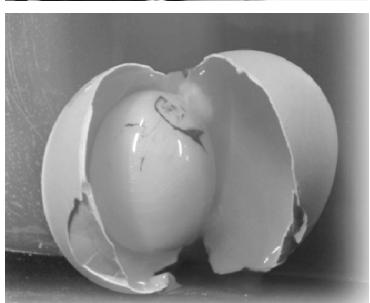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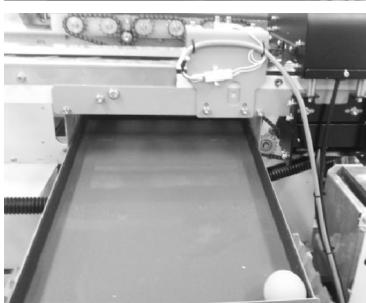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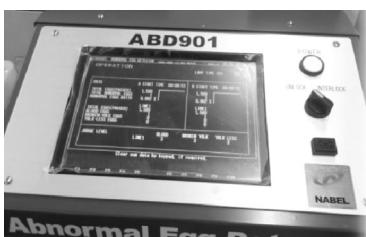
⑪ 난좌 포장

#### ▲ 포장란 생산공정

이 발병하여도 42개 계란을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어 차질없는 원란수급과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이 부분이 대형 단일 농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”고 설명했다.



▲ 실금파각란 검사 내부 실리콘 봉으로 컨베이어상으로 통과되는 계란을 16회/개 계란표면을 두드려서 음파를 측정하여 실금이 간 계란은 지정된 라인으로 배출



▲ 혈반란 검출 계란을 투광하여 계란속 혈반이 있을 경우 헤모글로빈반응으로 혈반란 검출

## Farm to table

지난 3월 완공된 다한의 계란유통센터는 조합원 출자 40억, 정부지원 20억 총 60억 비용을 들여 부지 5,680m<sup>2</sup>(1,808평), 건평 3,541m<sup>2</sup>(1,071평)로 A동은 원란보관실, 선별실, 사무실, 부자재실, 대(소)회의실, 식당이 B동은 제품 출하실, 액란가공, 부자재창고를 갖추었으며 1일 최대 계란 취급량은 100만개 이다.

현재 다한의 포장란 및 일반란 유통은 식자재(급식) 납품이 46.22%로 가장 많고 대형마트 납품이 25.32%, 난가공 제품이 16.49%로 뒤를 잇고 있으며 계란 납품으로 월 평균 3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.

이 조합장은 “조합이 생산한 계란은 일정 부분 판매처를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”는 판단에 계란유통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일일 최대 취급량은 100만개 이지만 현재는 20만개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다.

현재 걸음마를 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유통사업 정상화가 가장 큰 과제이며 과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”고 했다.

취재 | 최인환 기자  
enani85@naver.com

